

# “나는 누이로서 그를 사랑했어”: 『이블라이나』의 계급의식과 근친상간 모티프

허우리

프란시스 버니(Frances Burney)의 『이블라이나』(*Evelina*)는 여주인공 이블라이나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계급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근친상간의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시험한다. 준남작 벨몬트(Sir John Belmont)의 딸이지만 벨몬트 부부의 파경으로 인해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한 채로 시골인 베리 힐(Berry Hill)에서 성장한 이블라이나의 특수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소속(belonging)에 대한 것으로 만든다. 금욕적인 목사 빌러스(Reverend Mr. Villars)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이블라이나는 머반(Mirvan) 가족 등 교양을 갖춘 젠트리 계급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실제로 그녀와 혈연관계인 것으로 밝혀지는 뒤발 부인(Madame Duval)과 브랭턴(Branghton) 가족은 교양과는 거리가 먼 저속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최종적으로 아버지 벨몬트와 만나 친딸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귀족 계급의 이상적인 연인 오빌(Lord Orville)과 결혼하기 위해, 이블라이나는 자신이 상류층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할 자격을 가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블라이나가 벨몬트의 딸인 동시에 뒤발 부인의 외손녀이고, 브랭턴 가족의 친척이라는 계급적 불안감은 서사 전반을 관통하며, “나는 내가 누구에게 가장 가깝게 속하는지를 스스로도 잘 몰라요”(I hardly know myself to whom I most belong; 418)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은 오빌이라는 인물 안에서 연인과 오빠, 아버지상이 통합되는 근친상간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블라이나』에서 나타나는 근친상간의 테마에 주목한 그간의 비평은 이블라이나와 그녀의 친아버지 벨몬트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빌과의 관계의 근친상간적 암시는 그가 이블라이나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녀를 보호하는 아버지로서의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고, 부녀상간과는 구분되는 남매상간의 테마는 상대적으로 덜 탐구되었다. 폴랙(Ellen Pollak)은 18세기 소설의 근친상간 서사에 대한 연구에서 “프랜시스 버니의 『이블라이나』는 . . . 매카트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복잡한 근친상간 플롯을 짜내며 아버지와 딸 간의 근친상간적 욕망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취하는 양상을 보인다”(Frances Burney'

s *Evelina* . . . weaves an elaborate incest plot around the figure of Mr. Macartney and displays a general fascination with the problem of incestuous desire between fathers and daughters; 1)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블라이나』에 대한 폴랙의 논의는 부녀 대면 장면의 근친상간적 암시가 벨몬트의 가부장적 권위에 던지는 의혹과 불안정성에 집중하여 있으며, 매카트니, 나아가 오빌의 존재가 암시하는 남매 간의 “복잡한 근친상간 플롯”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 파이저(Irene Fizer)는 『이블라이나』에 대한 연구에서 친부인 벨몬트와 후견인 빌러스, 그리고 연인 오빌에 나누어져 나타나는 아버지상에 초점을 맞추고, 셰퍼(Julie Shaffer) 또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의 여성 소설에서 나타나는 근친상간의 테마를 다루며 『이블라이나』의 부녀 구도에 주목한다. 즉 “『이블라이나』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위협적일 정도로 성적인 감정들을 전면에 내세운다”(*Evelina* foregrounds the threateningly sexual feelings a father might have toward his daughter; Shaffer 75)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블라이나』의 근친상간 모티프 연구에서 부녀 간에 암시되는 근친상간적 충동과 이것이 내포하는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반면, 부녀 관계와 남매 관계의 근친상간적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연인 오빌의 존재는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블라이나와 오빌의 결혼으로 가능해지는 신분 상승과 근친상간적 욕망의 성취는 『이블라이나』에서 버니가 드러내는 문제의식의 근간을 꿰뚫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은 『이블라이나』의 근친상간 모티프가 작중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혈연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에 따라 공고해지는 계급 의식과 불가분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여주인공 이블라이나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계속되는 물음과 집착은 여성이 가족, 특히 남성에게 속한 존재여야만 한다는 사회적 현실과 직결되어 나타나기에, 작품을 관통하는 젠더 문제와 계급의식의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근친상간 모티프의 논의에서 중요하다. 여주인공 이블라이나의 배경 설정은 계급 사회가 친족 질서와 가부장제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에 대한 작가 버니의 관심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친아버지의 보호 없이, 또한 “어머니나,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여성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채”(without the guidance of a mother, or any prudent and sensible female; 149) 성장한 이블라이나는 사교계의 규범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머반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행동하면서도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된다.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사생아나 다름없는 이블라이나의 처지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nobody)로 규정하고, 윌로우비(Sir Clement

Willoughby)와 같은 방탕한 남성들의 표적으로 만든다. 세상에 뛰어난 이블라이나가 사교계를 알아가는 과정은 곧 “존중과 예의바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과 재산이 얼마나 필요 불가결한지”(how requisite are birth and fortune to the attainment of respect and civility; 347)를 깨닫는 과정이다. 혈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란 여주인공이 ‘벨몬트 양’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가는 서사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서사와 중첩된다. 도입부에서 빌리스와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이블라이나는 결말부에서 아버지, 남편, 이복오빠와 함께 ‘벨몬트 양’과 ‘오빌 부인’의 이름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블라이나에게 보호자, 특히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가 혈통의 가치를 증명할 아버지의 ‘이름’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좋은 결혼의 필요조건인 훌륭한 가문과 재산을 갖지 못한 그녀가 남편감을 찾지 못한 채 런던 사회를 떠돌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윌로우비의 적나라한 평가대로, “출생도 불확실하고, 지참금이라고는 미모밖에 없으며, 명백하게 남을 의지해 살아가야만 하는 소녀”(a girl of obscure birth, whose only dowry is her beauty, and who is evidently in a state of dependency; 411)는 상류층 신사들이 아내로 삼기에 적절한 상대로 여겨지기 어렵다. 또한, “지참금이라고는 미모뿐”이라는 사실은 실제 지참금이 없는 이블라이나의 가치가 성적 매력뿐이며, 그 때문에 남성들의 노리개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을 암시한다. 스테이브스(Susan Staves)는 작중에서 이블라이나가 젊은 미혼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 가운데서도 특히 남성의 공격적인 접근이 부각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런던에서 이블라이나는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많은 남성들의 눈길을 끌게 되며, “우연히 보호자들과 떨어지게 될 때마다 그녀는 무례하고 방종한 처사를 겪고 추격을 받으며, 대개는 붙잡히게 된다”(Every time she is accidentally separated from her protectors she is addressed with indelicate freedom, pursued, and usually grabbed; Staves 369). 스테이브스가 논의하는 “여성의 어려움”(female difficulties)은 출신이 불분명하고 아버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블라이나의 특수한 상황의 맥락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파이지는 이블라이나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성적 폭력의 위협이 그녀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블라이나는] 처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지만 법적인 아버지의 권한을 벗어난 채로 사회 안에서 움직인다. 아버지의 독점적인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녀는 남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적인 성적 거래의 대상이 된다”([Evelina] is that most desirable of commodities, a virgin, but one who moves through society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 legal father. Unmarked as her father’s exclusive

property, she becomes the subject of competing sexual exchanges among men; Fizer 79)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이블라이나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지만 남성들의 시선과 그에 수반되는 위협의 가능성을 집중시키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지 못한 채 미모만을 가진 처녀로서, “[이블라이나는] 아름다움, 몸의 총합 그 자체이다. 그녀가 가진 것은 성적인 접근 가능성이라는 사용 가치뿐이다”(Evelina] is the sum total of her beauty, her body. She has use value alone—sexual availability; Fizer 89).

아름다움만을 ‘지참금’으로 가진 이블라이나는 공적인 공간, 특히 복스홀(Vauxhall)과 메리본(Marybone) 등 여러 계급이 뒤섞인 군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남성들의 공격적인 접근을 경험한다. 메리본에서 폭죽 소리에 놀라 일행과 떨어진 이블라이나는 혼자가 된 자신에게 향해지는 노골적인 관심을 자세히 묘사한다. “계속해서 뻔뻔하고 무정한 남자들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건 명백했을 텐데도, 그들은 그걸 무례한 익살을 떨거나 멋대로 접근할 구실로 삼았죠”(Every other moment, I was spoken to, by some bold and unfeeling man, to whom my distress, which, I think, must be very apparent, only furnished a pretence for impertinent witticisms, or free gallantry; 276). 공적인 장소에서 친지들의 보호 없이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은 성적 접근에 무방비할 뿐 아니라 기꺼이 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곧 창녀들이 등장하여 이블라이나와 팔짱을 끼고 걷게 되면서 이 사실은 명백해진다. 이블라이나가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걷는 순간 로맨스의 여주인공과 창녀들 간의 경계는 불분명해지며, 이블라이나가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정숙함과 순수함의 덕목은 크게 위협받는다.<sup>1)</sup> 창녀들과의 물리적인 가까움은 정신적인 가까움까지도 암시하며, “이 불행한 여자들”(these unhappy women; 277)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오빌에게 목격당한 이블라이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치심과 괴로움에 시달린다(“I thought I should

1) 파이어는 이 장면에서 이블라이나와 창녀들이 순간적으로 혼동될 뿐 아니라 본질적인 유사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메리본 장면은 이블라이나와 창녀들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류층 여성과 타락한 여성 간의 구분은 흐려졌다. 사생아인 딸로서 이블라이나는 창녀들처럼 가문에 속해 있지 않고, 혼자서 도시 안을 떠돌고, 오직 몸만으로 가치가 정해지며, 모든 남성 ‘구매자’가 잠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여성이다”(The Marybone scene serves to mark Evelina’s similarity to the whores, rather than her dissimilarity from the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high-born woman and the fallen woman has become blurred. As an illegitimate daughter, Evelina is also a woman without a family; who circulates alone in the city; whose value accords solely with her body; who is potentially available to any male “buyer”; Fizer 90).

have fainted, so great was my emotion from shame, vexation, and a thousand other feelings, for which I have no expressions”; 279). 물론 복스홀의 어두운 골목에서 이블라이나와 마주쳤을 때 즉시 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윌로우비와는 달리, 오빌은 그녀가 타락했음을 의심하거나 이를 이용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젊은 미혼 여성이 창녀들과 어울린다는 상황은 여전히 해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블라이나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버니는 오빌이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장면을 삽입한다. “마침내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서 낮은 목소리로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밤에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부인들은 이전에도 당신과 함께 어울렸습니까?’”(at last, without looking at me, in a low voice and hesitating manner, he said, ‘Were those ladies with whom I saw you last night, ever in your company before?; 284) 이 장면은 복스홀에서 브랜턴 가족을 포함한 천박한 인물들에 둘러싸인 이블라이나에게 윌로우비가 던졌던 일련의 질문, “그럼 머반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아니군요? . . . 그들을 떠난 지 오래 되었습니까? . . . 런던에 오래 머무를 생각인가요?”(You are not, then, with the Mirvans? . . . have you left them long? . . . Shall you be long in town?; 238) 등을 상기시킨다. 이블라이나의 여성적 미덕에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여인의 평판만큼 섬세한 것은 없으며, 그것은 모든 인간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도 연약한 것”(nothing is so delicate as the reputation of a woman: it is, at once, the most beautiful and most brittle of all human things; 194)이라는 빌러스의 경고가 적절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며, 동시에 가문의 이름이 내포하는 계급적 우월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블라이나에게 ‘평판’을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블라이나가 사교계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예의범절을 습득하고 따르는 것은 ‘벨몬트 양’이라는 본래의 신분을 주장하기 위해 중요한 준비 작업이 된다. 처음 런던에서 무도회에 참여한 이블라이나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남성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로벨(Lovel)의 원한을 사고, 윌로우비에게 추궁당하고, 오빌 앞에서 부적절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수치를 겪으며 이블라이나는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경솔함이 초래한 당혹스러운 상황이나 곤경에 처하게 된다”(I am perpetually involved in some distress or dilemma from my own heedlessness; 288)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블라이나의 “경솔함”은 단순히 순진한 소녀의 실수로 용서되지 않고 천성적인 무례함과 천박함을 암시할 가능성을 남기기 때문에 문제적이다.<sup>2)</sup> 이

2) 이블라이나는 로벨과 이야기하는 장면 등에서 솔직한 감정, 특히 우스움을 억누르지 못

블라이나가 “교양 없는 행동”(ill-breeding)을 보였다는 로벨의 성토에 윌로우비가 “그렇지만 교양 없다니요? 믿을 수 없군요! 게다가 그녀는 무식한 짓을 하기에는 너무도 분별력 있어 보입니다”(But, *ill-bred?* – I can never believe it! And she looks too sensible to be *ignorant*; 41)고 외치는 장면은 이블라이나가 “교양 없고” 상류 사회의 예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처녀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블라이나가 벨몬트의 딸이라는 본래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사생아나 마 찬가지인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암시조차도 가능케 한다. 파이저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세상에 뛰어든 이블라이나에게 상류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은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될 수 있기에 특별히 중요하다. 이블라이나의 평판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어 있기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으로 인식된다면 그녀는 타고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 . . 만일 이와는 반대로 그녀가 교양 없이 자란 여성으로 인식된다면 스스로가 비천한 지위에 걸맞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뿐이며, 아버지의 법적 지배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예의범절은 이블라이나가 세상 안으로의 등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If she is perceived as a well-bred woman, she will prove herself worthy of her birthright. . . . If, by contrast, she is perceived as an ill-bred woman, she will prove herself equal only to her fallen status. She may then be fated to remain unacknowledged by her father’s law. Propriety is the only means with which Evelina can secure entrance into the world; Fizer 84). 이블라이나가 상류층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교계의 격식과 규범을 배우고 숙녀다운 행동을 몸에 익히게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교양있게 행동하고 예법을 준수한다면 ‘벨몬트 양’으로서의 타고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초라하고 무지한

---

하고 드러낸 결과 무례를 범하게 되는데, 사교계에서 통용되는 예의범절이 감정의 통제와 포장에 기반하여 있다는 사실은 톰킨스(Silvan Tomkins)의 감정 연구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얼굴에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행동은 감정을 드러낸 사람을 타인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사회적인 대인 관계가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인 정도에 따라,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유리해진다”(The free expression of affect on the face which the other can see also enables the other to achieve control of the one who wears his affects on his face. To the extent to which soci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hostile or competitive, it becomes advantageous to wear a poker face and not to look too intimately into the eyes of the other; Tomkins 145)

시골 소녀 ‘이블라이나 앤빌’이 될 뿐이라는 논리는 『이블라이나』를 관통하는 계급 의식을 뒷받침한다.<sup>3)</sup>

혈족의 보호 없이 머반 가족의 호의에 의존하던 이블라이나의 처지는 뒤발 부인과 브랜턴 가족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다소 변화한다. 새롭게 나타난 친척들의 존재는 이블라이나에게 가족으로서 “충실한”(dutiful)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이블라이나가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교양 있는 인물들과는 거리가 있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블라이나가 벨몬트의 딸인 동시에 뒤발 부인의 손녀이고, 브랜턴 가족의 친척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계급적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행동하기에 따라 이블라이나가 그 중 어느 쪽에 속하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더구나 벨몬트에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사생아나 다름없는 이블라이나는 뒤발 부인과 브랜턴 가족만을 혈족으로 여기고 함께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위협적이다. 이블라이나가 교양 없는 가족들과 함께 공적인 장소에 있는 모습을 윌로우비에 목격당하는 장면에서, “그처럼 천박하지만, 동시에 그처럼 내게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클레멘트 윌로우비 경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불쾌한 일은 없었을 것”(nothing could be more disagreeable to me, than being seen by Sir Clement Willoughby with a party at once so vulgar in themselves, and so familiar to me; 244)이라는 이블라이나의 고백은 이들이 “천박”하면서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머반 가족과 지낼 때의 이블라이나는 교양을 갖춘 처녀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녀가 뒤발 부인이나 브랜턴 가족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 그 평가는 흔들린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에 따라 이블라이나 본인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섬세함”(delicacy)에 대

3) 다만 예젤(Ruth Bernard Yeazell)이 지적한 바대로, 이블라이나의 반복되는 수치와 사회적 관습의 위배는 오히려 그녀가 가진 순수함의 미덕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블라이나』를 형성하는 판타지는 젊은 여성이 끊임없는 수치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것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수치로 인해 사랑받게 된다는 점이다”(the fantasy that shapes *Evelina* is not merely that the young woman will be loved despite her perpetual embarrassments but that she will be loved because of them; Yeazell 135). 이블라이나의 실수와 수치를 목격하게 되는 주 대상이 오빌이라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It might almost be said that the hero’s chief function in this novel is not so much to court the heroine as to witness her embarrassment”; Yeazell 129). 이블라이나를 돋보이게 하는 반면 호색한 남성들의 시선을 끌어 위협을 초래하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이블라이나의 무구함은 그녀의 신분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반면 타고난 순진함의 미덕을 증명하고 성적 매력을 가증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 스테이브스의 논의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스테이브스에 따르면, “여성의 섬세함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충분히 자주 혹은 심하게 상처를 입는다면 죽임당할 수도 있다. 섬세함은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처녀성과 비슷하지만, 여성 개인이 놓인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침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녀성보다도 더 취약하고 위태롭다”(Female delicacy can be wounded and, if wounded often enough or seriously enough, actually killed. Delicacy is in part like virginity: once lost it cannot be regained. Yet it is still more fragile and precarious than virginity, since it can be eroded by the social ambiance in which one finds oneself; 373-74). 이블라이나의 섬세함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다름아닌 그녀의 혈족들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척들은 교양 없고 속물적이기 때문에 종종 서사 내에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문제적인 존재들이기도 하며, 스테이브스가 지적하듯이 “이들은 로맨스 플롯을 부수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도 이상으로 로맨스의 여주인공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 로맨스를 방해하는 인물들이다”(These characters are not incidental to the romance plot; they are blocking characters with a closer relationship to the romance heroine than is usual; Staves 376). “로맨스를 방해”한다는 것은 곧 오빌과의 결혼을 통해 상류층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고히 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며, 교양 없지만 이블라이나와 몹시 “가까운” 친척들이 이 방해의 주체라는 사실은 소설을 관통하는 혈족과 계급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sup>4)</sup>

이블라이나의 외할머니로서 혈연적으로 가깝지만 지속적인 행동을 보이는 뒤발 부인은 이블라이나의 목적인 신분 상승의 결과를 비틀린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계급적 불안감을 자극한다. 예젤의 분석에 의하면, “이블라이나가 세상으로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뒤발 부인이 영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어떤 악몽 같은 논리를

---

4) 폴락은 「이블라이나」가 활용하는 복잡한 인물 관계 설정과 이에 따라 가부장적 질서에 기반한 혈족, 인척 관계가 흔들리는 현상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안과 밖, 또는 사적 의무와 공적 의무 간의 허술한 경계는 서간체 형식의 특징이며 버니의 텍스트를 지배하고, 낯선 사람들이 친인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대리자가 원형보다도 우선하게 되는 세계 안에서 . . . 자아와 타자 간의 경계뿐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가족의 개념 그 자체도 복잡하게 만든다”(The porous border between inside and outside or between private and public imperatives that characterizes the letter form pervades Burney’s text, complicating the boundaries between self and other as well as the very concepts of place and family in a world where strangers . . . turn out to be relations and where substitutes take priority over their prototypes; Pollak 158).



포함하고 있다. 술집 여급에서 프랑스 출신의 부인으로 변신을 이룬 뒤발 부인은 사회에 나서는 것이 곧 부적절한 관심을 받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손녀딸의 두려움을 과장하여 투사한 것처럼 등장하기 때문이다”(The coincidence of Evelina’s entrance into the world with Madame Duval’s return to England has a certain nightmarish logic, since the former tavern girl turned Frenchwoman appears on the scene like an exaggerated projection of her granddaughter’s fear that to come out means to call improper attention to herself; 132). “부적절한 관심”을 모으며 사람들, 특히 남성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이 부인은 이블라이나가 본의 아니게 주목을 끌고 남성들의 접근을 겪게 되는 상황을 뒤집어서 재현한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뒤발 부인을 수행하는 프랑스인 드부아(Monsieur Du Bois)가 이블라이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뒤발 부인이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she had herself proposed being the object of his affection; 298) 격분했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두 남편을 거치며 신분 상승을 이룬 뒤발 부인은 남성의 애정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생활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후 이블라이나 또한 귀족인 오빌과의 결혼을 통해 숙녀로서의 신분을 확고히 할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자신의 잠재적 연인을 ‘빼앗은’ 손녀를 “은혜도 모르는 교활한 계집애”(an ungrateful, designing girl; 298)라고 매도하는 이 코믹한 장면은 의미심장한 함의를 지닌다. 메리본을 해매는 창녀들과 동일시되면서 혼들렸던 이블라이나의 순수함과 계급적 정체성은 천박한데다 남성의 관심과 애정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외할머니와 겹쳐지면서 다시 한 번 위기를 겪는 것이다.

천박하고 무례한 행태를 보이는 친척들에게 이블라이나가 표하는 불쾌감은 계급 의식, 개인의 교양, 혈족 관계가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위 계급의 ‘천박함’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분짓고 상류층과 동일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이블라이나의 계급적 정체성은 그녀가 친척들에게 대해 느끼는 경멸의 감정에 어느 정도 의존하여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톰킨스는 감정에 대한 연구에서 경멸 혹은 혐오, 그리고 수치심을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감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톰킨스에 따르면, “한 개인, 계급, 또는 국가가 계급적 관계나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할 때는 타자에 대한 경멸을 이용할 것이다. 경멸은 억압하는 자의 표식이다. 계급적 관계는 억압받는 측이 스스로를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고개를 떨굴 때 유지된다”(Whenever an individual, a class, or a nation wishes to maintai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or to maintain aloof-

ness it will have resort to contempt of the other. Contempt is the mark of the oppressor.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is maintained either when the oppressed one assumes the attitude of contempt for himself or hangs his head in shame; 139). 이 경우, 본래 상류층에 속하나 ‘억압받는 측’에 놓이게 된 이블라이나는 자신과 동일선상에 놓인 친척들의 교양 없는 행동에 불쾌감을 포함으로써 그들과 자신 사이에 경계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취한다. “자식, 배우자, 친구의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종종 성격상의 결함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상황 자체보다도 더 격심한 수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Shamelessness in a child or spouse or friend may evoke deeper shame than the circumstances themselves, since this is often interpreted as a character defect in the other; Tomkins 160), 친척들의 ‘부끄러운’ 행동은 상류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블라이나가 느끼게 되는 불편한 감정은 배가된다. 속물적이고 교양 없는 인물에 대한 혐오감은 그 자체만으로 이블라이나를 상류층에 속한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 저속한 인물들은 이블라이나의 혈족이거나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친지들이기 때문에 계급적 불안감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넵튠 조각을 장군이라고 설명하는 스미스(Mr Smith)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뒤발 부인의 모습은 이블라이나의 서사에서 통렬하게 풍자되며,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었던 윌로우비까지도 교양을 갖춘 인물로서 이블라이나와 함께 경멸의 주체가 된다(“I saw Sir Clement bite his lips; and, indeed, so did I mine”; 240).

물론 이블라이나의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 브랜턴 가족과 같은 도시 부르주아 계급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의 배경이 브리스톨로 옮겨지면서 중점적으로 묘사되는 머튼(Lord Merton), 커버리(Mr Coverley), 오빌의 누이인 루이자(Lady Louisa Larpent)는 상류층의 방탕함과 계급주의에 기반한 오만함을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마차 경주로 내기를 하고, 사치를 즐기며, 출신이 불분명한 이블라이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희롱한다. 이블라이나의 서사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보몽 부인(Mrs Beaumont)조차도 셀윈 부인(Mrs Selwyn)의 예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보몽 부인은 운 좋게 고귀하고 오래된 가문에서 태어난지라 출신과 미덕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좋은 자질도 가지기는 했지만 그건 원칙보다는 자존심에서 온 것이야. 그녀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기엔 자기가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혈통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chancing herself to be born of a noble and ancient family, she thinks proper to be of opinion, that *birth* and *virtue* are one

and the same thing. She has some good qualities, but they rather originate from pride than principle, as she piques herself upon being too high born to be capable of an unworthy action, and thinks it incumbent upon her to support the dignity of her ancestry; 336). “출신과 미덕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무례한 친척들을 경멸함으로써 그들과 자신을 구분지었던 이블라이나의 행동과 겹쳐지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상류 사회 인물들의 경박함과 오만함, “방탕한 행동과 사치스러움”(dissipated conduct and extravagance; 368)은 이블라이나, 그리고 오빌이 갖춘 진정한 미덕과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그려진다. 교양과 미덕은 이블라이나와 오빌을 저속한 인물들로부터 구별할 뿐 아니라 ‘같은 수준’을 가진 두 사람이 교감을 나누는 근거가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오빌 경도 저만큼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가 제 감정을 읽었을 뿐 아니라 표정을 통해 자기 감정을 말해주는 것을 보고 저는 그나마 기분이 나아졌지요”(I should have been quite sick of their remarks, had I not been entertained by seeing that Lord Orville, who, I am sure, was equally disgusted, not only read my sentiments, but, by his countenance, communicated to me his own; 341). 상류층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교양을 갖추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연인들은 천박한 태도에 대한 공통되는 경멸을 통해 다시 한 번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빌은 이블라이나와 계급적으로 동등하고 같은 수준의 교양과 미덕을 지닌 이상적 연인이 되며, 연인들이 공유하는 유사성은 흥미롭게도 남매와 부녀 관계에 대한 은유로 공고해진다. 오빌이 이블라이나를 보호하고 애정을 베푸는 아버지, 오빠로 여러 번 비유되며, 혈족 관계에 빚대어지는 이들의 관계가 무리 없이 연인관계로 변화하게 되면서 근친상간의 모티프는 중요하게 대두된다. 처음 오빌에게 호감을 품게 된 이블라이나는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양아버지격인 빌러스에 대한 비유를 이용한다.<sup>5)</sup> “저는 때때로 상상하곤 해요. 젊

---

5) 파이어는 이 장면에서 오빌과 빌러스가 하나의 아버지상으로 적극적으로 겹쳐지며, “이블라이나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대해 줄 남편을 원하고, 그가 완전히 남성성을 잃고 ‘활력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애정을 느끼게 될 것”(Evelina seeks a husband who will be like a father to her, and she will love him best when he has been fully desexualized, his “vivacity abated”; 98)이라는 점이 시사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월로우비, 스미스, 머튼과 같은 ‘잠재적 연인들’과 오빌을 구별짓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구혼자들’이 기회주의자, 예비 강간범, 또는 술에 취한 호색가들인 소설 안에서 바람직한 구혼자가 되기 위해, 오빌은 극단적으로 중성화되어야 한다”(Lord Orville must be neutralized to an extreme in order to become the proper suitor within

음이 흘러가고 활력이 줄어들어 그가 공적 생활을 떠나게 되면, 그는 어쩌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닮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I sometimes imagine, that, when his youth is flown, his vivacity abated, and his life is devoted to retirement, he will, perhaps, resemble him whom I most love and honour; 84). 이후 오빌의 신사다움에 감탄한 이블라이나는 “오, 목사님! 오빌 경 같으신 분이 세상에 또 있었을까요? 바로 그런 분이 딱 하나 지금 베리 힐에 살고 계시죠!”(O sir! – was there ever such another man as Lord Orville? – Yes, *one other now resides at Berry Hill!*; 378)라며 그를 다시 한 번 빌러스에 비유하고, 두 남성은 세상에 단 둘뿐인 동급의 존재인 것으로 암시된다. 다른 한편으로, 오빌은 머튼과 같은 호색한 남성들의 접근으로부터 이블라이나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남매에 비유하고, 그녀를 “새로이 얻게 된 누이동생, 가장 사랑스럽고 다정한 친구”(my new-adopted sister, my sweet and most amiable friend!; 391)라 부르기에 이른다.

이블라이나와 오빌의 관계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먼저 부녀, 또는 남매에 비유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건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친상간적 암시를 지닌다.<sup>6)</sup> 세퍼는 이블라이나와 오빌의 경우처럼 혈족이 아닌 두 인물 사이의 가족적인 애정이 성적인 감정으로 발전하는 관계 구도를 “가족화된 근친상간”(familialized incest)이라는 단어로 정의한 바 있다. 세퍼에 의하면, “누군가를 배우자로서 사랑하기 전에 형제, 부모, 자식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한 소설들의 세계 안에서는 문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독자들에게 그러한 관계의 변동은 뒤집혀도 성립 가능한 등식처럼 들리기 때문에, 근친상간에 대한 대부분의 금기를 고려할 때 결코 성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성적으로 만든다는 위험성을 암시할 수 있다”(Loving someone as a sibling, parent, or child before loving him or her as a spouse seems unproblematic within the world represented in these novels, but to late twentieth-century readers, such shifts

---

a novel where “suitors” are opportunists, protorapists, or drunken lechers; Fizer 99).

6)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또는 오빠적인 남성이 행사하는 권위와 남편의 권위가 서로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젤은 항상 이블라이나를 지켜보고 그녀의 행동을 평가하는 역할을 해온 오빌이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며, 결혼 후 남편으로서의 위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134).

may hint at danger, sounding like a reversible equation, sexualizing a relationship that should not, given most incest taboos, be sexualized at all; 69). 여주인공의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하면서도 애정을 베풀고 보호를 제공하는 연인은 아버지 혹은 오빠에 자연스럽게 비유되며, 연인들 스스로가 이 구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관계 진전의 도구로 삼는다. 이블라이나와 오빌은 최종적으로 부부가 되는 데 필요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가족화된 근친상간’의 단계를 거치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감정을 가족적인 것으로 포장하면서도 근친상간의 위험한 가능성을 남기게 된다.

서사의 표면상 근친상간의 모티프는 오빌과의 관계에서 이블라이나의 정숙함을 증명하기 위해 일종의 방어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숙함의 미덕을 지닌 여주인공으로서 이블라이나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공격성을 드러낼 수 없으며, 여성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규범의 범주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해야 한다. “남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애의 선천적인 욕구는, 상류층의 생활을 접함으로써 얻게 되는 예의범절을 잘 익히도록 도움을 준다”(since that politeness which is acquired by an acquaintance with high life, is in her so well supplied by a natural desire of obliging; 23)는 하워드 부인의 평가는 이블라이나의 미덕이 순종과 정숙함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낸다. 처음 사교계에 들어서는 아름다운 소녀는 “세상을 위한 장식”(an ornament to the world; 145)과도 같다. 이 때 “나는 누이로서 그를 사랑했다”(As a sister I loved him; 310)는 이블라이나의 고백은 지나친 대담함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빌에 대한 애정을 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구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빌의 호의를 여러 번 경험한 이블라이나는 자신 역시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여성으로서 부적절한 성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매 간의 사랑’의 언어를 이용한다. 예젤의 설명에 의하면, “구애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부과되는 관습적인 제약을 감안할 때, 여성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대체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다는 것이며, 보여지고 심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여지고 부각되고 선택받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감추거나 최소한 공격적인 자기 과시의 징후를 피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Given the conventional constraints on her role in courtship, for the woman to enter the world is largely for her to be exposed to the gaze of the Other, to be looked at and judged. Yet even as she comes out precisely in order to be seen, to stand out and be chosen, she remains subject to the contradictory injunction to

keep herself modestly concealed, or at least to avoid any sign of aggressive self-display; 130). 타인의 시선을 끌면서도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역설은 남성에게 사랑받고 그에게 사랑을 느끼면서도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역설로 이어진다. 이블라이나의 경우, 정숙함을 지키면서도 오빌에 대한 애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성적인 관계 중에서도 가장 문제적이고 전복적이라 할 수 있을 근친상간의 언어를 빌리는 것이다.

연인 관계의 성적인 특성을 감추고 포장하는 듯한 ‘정숙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연인인 오빌이 아버지, 오빠에 반복적으로 비유된다는 사실은 근친상간 모티프의 전복적인 성질을 작가 버니가 포착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블라이나와 오빌의 관계에서 근친상간적 암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이블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유사 남매 관계가 설정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술에 취한 머튼이 약혼녀인 루이자를 방치한 채 이블라이나를 희롱하는 상황에서, 기분이 상한 루이자는 친오빠인 오빌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한다.

“조용히 좀 하세요, 커벌리 씨.” 루이자 양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난 그 사람과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빠,” (오빌 경의 팔을 붙잡으며) “나랑 같이 집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정말이지,” 저는 머튼 경이 많이 취한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말했죠. “나한테도 오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러자 오빌 경이 곧바로 루이자 양에게서 떨어져서 말하길, “내가 그 칭호를 받는 것을 앤빌 양이 허락해 주실까요?” 그러고서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저를 머튼 경에게서 떼어내더니 루이자 양에게 말기며 덧붙였어요. “내 두 명의 누이를 공평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는 루이자 양이 그의 한쪽 팔을 잡게 하고서 제게는 다른 쪽 팔을 잡으라고 청했고, 우리는 금방 집에 도착했죠.

‘Pray, Mr Coverley, be quiet,’ said Lady Louisa, peevishly, ‘for I declare I won’t speak to him. Brother,’ (taking hold of Lord Orville’s arm) ‘will you walk in with me?’

‘Would to Heaven,’ cried I, frightened to see how much Lord Merton was in liquor, ‘that I, too, had a brother! – and then I should not be exposed to such treatment!’

Lord Orville, instantly quitting Lady Louisa, said, ‘Will Miss Anville allow *me* the honour of taking that title?’ and then, without waiting for any answer, he disengaged me from Lord Merton, and, handing me to Lady Louisa, ‘Let me,’ added he, ‘take equal care of *both* my sisters;’ and then, desiring her to take hold of one arm, and begging me to make use of the other, we reached the house in a moment. (371)

친누이인 루이자와 ‘새로운’ 누이인 이블라이나가 나란히 오빌과 팔짱을 끼고 걷게 되면서 두 ‘누이’의 차이는 흐려지고, 여동생과 연인 사이에 존재해야 할 경계선 또한 불분명해진다. 남매 관계에 대한 비유는 한순간의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빌의 의사에 따라 지속된다. “친애하는 앤빌 양 . . .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말 친오빠처럼 여기도록 하세요”(My dear Miss Anville, . . . allow me to be your friend; think of me as if I were indeed your brother; 372). 이후 오빌은 이블라이나가 낯선 남자 매카트니와 만나는 이유를 추궁하고, 이 ‘밀회’를 막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성립된 유사 남매 관계를 집요하게 이용한다. “나는 당신의 오빠가 아납니까? . . . 그러니 당신의 일에 대해 물어야지요”(Am I not your brother, . . . and must I not enquire into your affairs?; 376)라는 주장, “내 누이동생이 밀회를 갖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십니까?”(do you know that I shall not suffer my sister to make a private appointment?; 376)라는 ‘오빠’의 선포는 이블라이나에 대한 성적 지배권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유사하다. 실제로 작품 후반부에서 오빌이 이블라이나에게 보이는 남성 친족, 혹은 남편과 같은 관심은 윌로우비에 의해서도 지적된다. “그처럼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 . . 실로 매우 관대한 처사입니다만, 아버지나 형제나 연인의 입장이 아니고서는”(Such an interest . . . is, indeed, very generous; but except in a father, — a brother, — or a lover —; 409)이라는 윌로우비의 말에 ‘부적절하다’는 심판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나, 이 구도에서도 “아버지, 형제, 연인”은 여성과 맺는 관계에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연인이자 남편으로서의 오빌의 기능은 끊임없이 아버지이자 오빠로서의 기능과 병치되며 결국 두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가상의 오빠’인 오빌이 이블라이나와의 은밀한 관계를 의심하는 상대인 ‘친오빠’ 매카트니는 이블라이나와 오빌의 관계에서 은유되는 남매 근친상간의 모티프를 더 적나라하게 재현하고 반복하는 인물이다. 유모 그린 부인(Dame Green)의 계략으로 인해 이블라이나 대신 벨몬트의 딸로 키워진 폴리 그린(Polly Green)과 사랑에 빠진 그는 자신이 벨몬트의 사생아임을 알게 되자 연인인 ‘벨몬트 양’과 자신이 이복 남매간임을 깨닫고 절망한다. 이후 벨몬트의 친딸인 이블라이나가 매카트니와 만나 형성하게 되는 관계는 남매상간의 가능성을 은근하게 암시하고 있다. “나처럼 비참한 자의 운명을 결정짓고 지배하시는 분”(arbitress and ruler of the destiny of such a wretch as I am; 254), “천사”(an angel; 273), “불행한 나를 도우시는 분”(the benefactress of my distress; 352) 등 매카트니가 이블라이나를 칭하는 말은 멜로드라마적인 수사로 가득하다. 텍스트 상에서 매카트니가 이

블라이나에게 보이는 태도는 감상적이기는 해도 결코 로맨스적인 애정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브리스톨에서 발견된 이블라이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가 매카트니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고(“Yet, my dear Sir, I must own to you, I have no doubt but that Mr Macartney must be the author; no one else would speak of me so partially; and, indeed, his poetical turn puts it, with me, beyond dispute”; 396) 적극적인 구애자 월로우비가 이 시를 필사하여 이블라이나에게 건네주자 근친상간의 암시는 한층 더 짙어진다. 반면 폴리와 혈연관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예시하기라도 하듯, 매카트니가 폴리를 누이로 부르는 장면은 처음 가족사를 털어놓을 때 그녀를 “내 불행한 누이”(my unhappy sister; 271)라고 칭하는 단 한 번뿐이다. ‘벨몬트 양’으로서 등장한 폴리와 아는 사이인지를 이블라이나가 추궁할 때조차 그는 ‘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 숙녀는 존 벨몬트 경, 제 아버지의 딸입니다!”(that lady—is the daughter of Sir John Belmont!—of my father!; 379) 결말부에서 숨겨진 혈연관계가 밝혀지며 누이인 줄로만 알았던 폴리와 안전하게 맺어지고, 진짜 누이와 그 ‘새로운 오빠’인 이블라이나-오빌 부부와 같은 날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매카트니는 근친상간의 모티프를 서사 안에 포섭시키면서도 그 한계를 시험하는 인물이 된다.

근친상간 모티프는 섹슈얼리티를 정숙함으로 포장하는 동시에 여성이 성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셰퍼에 의하면, 혈연에 비유되는 관계를 형성한 남녀가 서로에게 로맨스적 애정을 품게 되는 “가족화된 근친상간”의 구도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규범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남성과 애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실이다. 남매 또는 부녀로 설정되었던 관계는 쉽게 연인으로 변화하며, “그런 변화는 남성에게 애정을 품거나 표현하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제약을 위협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여성적 사랑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상상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such a shift might speak to women’s need to imagine supportive relationships by offering models of female love that did not threateningly depart from strictures on women developing and showing affection for men; Shaffer 80). 남매 관계, 부녀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블라이나는 오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드러내고, 그가 제안하는 보호를 받아들이고, 정숙함의 규범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 혈족 간의 우의와 친애의 언어가 구애의 과정에서 이블라이나의 ‘정숙함’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녀가 스스로 오빌에 대해 품었다고 주장하는 ‘누이로서의 사랑’은 연인으로서의 사랑으로 성공적으로 치환된다.

그러나 로맨스에서 이용되는 근친상간의 언어는 안전함을 제공하면서도 성적인



특성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기에 전복적일 수 있다. 한때 피가 이어진 가족처럼 이블라이나를 보호하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던 오빌이 결혼 이후에도 남편으로서 비슷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 연인의 관계는 유사 혈족에서 부부로 나아가면서 안전한 로맨스적 플롯의 완결을 이루는 듯하지만 동시에 남녀관계의 근친상간적 함의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로 남겨둔다. 파이저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딸과 오빠/여동생이라는 이 가족적인 단어들은 이중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한편으로 이들은 오빌과 이블라이나의 결혼의 에로틱한 특성을 제거한다. 결혼은 열정적인 연인들이 맺어지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간의 법적인 계약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에로틱하며, 결혼을 통해 가족 로맨스의 리비도적 원망을 안전하게 충족시킨다”(These familial terms of father/daughter and brother/sister carry a dual significance. On the one hand, they annul the erotic nature of Orville and Evelina’s marriage: it becomes a legal contract between a protector and his charge, rather than a paring of impassioned lovers. On the other hand, the terms are inherently erotic: they safely fulfill the libidinal wishes of the family romance through marriage; 98). 오빌을 아버지와 오빠에 비유하며 ‘정숙한’ 사랑의 구도를 지켜온 이블라이나는 오히려 그와 맺어지면서 근친상간이라는 전복적인 관계를 암시적으로 실현시키게 된다. 남녀 간의 성적 긴장감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동시에 혈연 관계를 연인 관계와 등치시킨다는 근친 모티프의 역설성을 이용하여, 버니는 가부장적 질서 하에 구성된 혈연과 남녀관계의 경계를 불분명한 것으로 만들고 여성에게 강요되는 행동양식의 내적 모순을 폭로한다.

『이블라이나』가 사회 비판적 특성을 보이는 작품이라는 맥락에서, 근친상간이라는 주제가 여주인공의 불확실한 출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탐구된다는 사실은 중요해진다. 이블라이나는 아버지의 권력에 속하지 않은 채 사회에 나서게 되는 시점에서 이미 문제적인 성질을 내포한 여주인공이다. 슈미젠(Wolfram Schmidgen)은 18세기 소설들에서 등장하는 사생아 캐릭터의 사회 비판적인 잠재력을 다루는 논의에 사생아인 딸(bastard daughter)로서 이블라이나를 포함시킨다. 슈미젠에 따르면, “사생아는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 구조를 가시적으로 만드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the bastard, by way of his liminality, would seem to be in a position to make social structure visible; 140).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지 못한 사생아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할 수 없고, “그런 사회적 위치의 부재는 주변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극단적 민감성과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such placelessness fosters an extreme sus-

ceptibility to and awareness of circumstances and surroundings; Schmidgen 151) 관습의 인위성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이블라이나는 여성이기에 가부장적 질서에 기반한 권력 관계를 비판하기에 적합한 인물일 수 있다. 친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며 여성이라는 이블라이나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버니의 소설은 일반적으로 젊은 미혼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는 계급 구조를 변형시켜 다양한 관점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관측의 매개로 만든다”(Burney’s novel transforms the hierarchy that usually restrains the movements of a young unmarried woman into an observational vehicle through which various positions can be occupied; Schmidgen 154). 사생아인 딸이라는 특성은 이블라이나에게 ‘벨몬트 양’과 ‘앤빌 양’의 경계선을 오가며 계급 사회와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는 시선을 부여한다. 결국 이블라이나의 모호한 출신 성분과 이에 따라 자극되는 계급적 불안감, 그리고 로맨스에 침투하는 근친상간의 모티프는 모두 버니의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사회 비판 의식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여러 평자들은 버니가 풍자와 사회 비판에 타고난 재능을 보이면서도 결국 결혼과 재포섭이라는 로맨스적 플롯에 순응하였다는 점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적 덕목의 강조와 로맨스는 작품을 지나치게 문제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버니가 도입한 일종의 필요악으로 여겨진다. 예젤은 “『이블라이나』는 정숙함의 허구가 풍자적 충동을 포장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허용한다”(Evelina repeatedly allows a fiction of modesty to cover the impulses of a satirist; 138)고 주장하며, 스테이브스 역시 “우리는 악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로맨스를 수용하라는 요청을 받는 듯하며 패니 버니 스스로도 이 악덕에 대한 타개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We seem to be invited to accept the romance as a solution to evils for which Fanny Burney knows she does not really have a remedy; 380)며 의견을 같이한다. 이러한 해석은 버니가 풍자적이고 문제적인 인물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반드시 병행하고, 미덕을 갖춘 중심 인물들에게서는 이러한 특성을 배제하려 한다는 사실에서도 근거를 얻는다. 특히 뛰어난 풍자가인 셀윈 부인은 “남성적이라 불릴 만한 판단력”(her understanding, indeed, may be called *masculine*”; 318)을 가진, 즉 여성적인 미덕을 갖추지 못한 인물로 비판되며, 그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풍자를 하고자 하는 무자비한 성향”(her unmerciful propensity to satire; 319)에 집중된다. 순수함과 정숙함의 미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설에서 풍자가로서 정체성을 갖는 여성이 등장하고, 그녀가 “남성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버

니 스스로의 자기 검열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스테이브스의 주장에 따르면, “패니 버니는 작품에 생명을 주는 특성들을 이블라이나와 오빌에게서 지워버리고 뻔뻔스럽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들에게 그 특성을 부여하는 데 작가로서의 능력을 모두 쏟아붓는다”(All the resources of Fanny Burney’s art are used to exorcise from Evelina and Lord Orville those qualities which give life to the book and to embody them in characters who are then criticized for their boldness; 379). 규범에서 벗어난 인물들은 합당한 비판을 받고,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인물 관계는 모두 해명되고, 흠 없는 미덕과 교양을 갖춘 이블라이나와 오빌이 뗫어지게 되면서 소설은 문제적인 소재들을 체제 안에 재포섭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블라이나』에서 버니가 활용하는 요소들의 전복적인 특성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말부에서 버니는 결혼을 통한 가부장적 질서의 재구성에 순응하는 듯하지만, 남매 같은 연인 두 쌍의 결혼은 그 질서를 위협하는 근친상간 모티프의 문제성을 증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유모의 딸을 친딸로 키웠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찾아올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벨몬트는 폴리의 진짜 신분을 공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로 이블라이나와 오빌의 결혼식 날에 폴리와 자신의 사생아 매카트니의 결혼을 추진한다. ‘벨몬트 양’을 사랑했으나 그녀와의 관계가 근친상간이 된다고 생각하여 좌절했던 매카트니는 새롭게 등장한 ‘벨몬트 양’을 이복누이로 맞이하고, 연인이었던 ‘벨몬트 양’을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근친상간의 테마는 폴리와 매카트니의 결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꾸준히 부녀와 남매 관계에 비유되어온 이블라이나와 오빌의 결혼에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이블라이나가 상류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한 가문에 속한 여성으로서 ‘재포섭’되는 것은 아버지이자 오빠이고 연인이라는 오빌의 복합적인 이미지가 남편이라는 역할 안에서 통합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설이 내포한 문제성은 안전하게 보이는 결말로 포장되지만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다. 정숙함의 미덕을 보전하면서도 혈족 관계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한다는 근친상간 모티프의 역설성처럼, 불온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버니의 문제 의식은 규범에 순응하는 ‘미덕’의 가면을 쓴 채로 『이블라이나』의 서사를 지배한다.

## Works Cited

- Burney, Frances. *Evelina: or, a Young Lady's Entrance into the World*. London: Penguin, 2012.

- Fizer, Irene. "The Name of the Daughter: Identity and Incest in *Evelina*." *Refiguring the Father: New Feminist Readings of Patriarchy*. Ed. Patricia Yaeger and Beth Kowaleski-Wallac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89. 78-107.
- Pollak, Ellen. *Incest and the English Novel, 1684-1814*.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03.
- Schmidgen, Wolfram. "Illegitimacy and Social Observation: The Bastard in the Eighteenth-Century Novel." *ELH* 69.1 (2002): 133-66.
- Shaffer, Julie. "Familial Love, Incest, and Female Desire in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Century British Women's Novels." *Criticism* 41.1 (1999): 67-99.
- Staves, Susan. "*Evelina*: or, Female Difficulties." *Modern Philology* 73.4 (1976): 368-81.
- Tomkins, Silvan. "Shame-Humiliation and Contempt-Disgust." *Shame and Its Sisters: A Silvan Tomkins Reader*. Ed. Eve Kosofsky Sedgwick and Adam Frank. Durham: Duke UP, 1995. 133-78.
- Yeazell, Ruth Bernard. "Evelina's Self-Effacing." *Fictions of Modesty: Women and Courtship in the English Novel*. Chicago: U of Chicago P, 1991. 122-42.

ABSTRACT

“As a sister I loved him”:  
Class Consciousness and Incest Motif in *Evelina*

Woo Ree Heor

Frances Burney's *Evelina* explores the precarious class identity of its eponymous heroine through the frequent use of incest motif invoked in the romance plot. Although *Evelina* was born as the legitimate daughter of Sir John Belmont and his late wife, she lacks paternal protection crucial to the safe entrance into the world for a marriageable young woman as she is not “owned” by her father. Without the paternal ownership inscribed over her, *Evelina*'s beauty only serves to attract rakish gentlemen of London and endangers her own safety. *Evelina*'s ignorance of decorum in high society, which frequently embarrasses her in public, strengthens her innocent charms before her potential suitors but simultaneously endangers her claim to the noble title of Miss Belmont because it can suggest possible ill-breeding, and therefore, unsuitableness for a more elevated status. Despite her uneasy and uncertain social identity, *Evelina* regards herself as a member of the genteel society and attempts to put a firm demarcation between herself and her vulgar and unrefined relatives, Madam Duval and the Branghtons, by actively expressing her disgust and anger towards their behavior in her narrative. In a world where an abandoned daughter despairs of being “owned” by her high-class father and finds that her other family members are impossible to “own,” another viable option for *Evelina* to reclaim her class identity emerges in the form of a marriage with a desirable husband. *Evelina* promptly finds herself attracted to Lord Orville, the ideally noble and polite gentleman, and the strong bond between the young lovers is underscored through the striking usages of incest motif. *Evelina*'s quest to gain the formal and legal acknowledgment of Sir Bel-

mont coincides with her romance with Orville, and the titles of Miss Belmont and Lady Orville go hand-in-hand in her ascent up the class system. As Orville later proclaims to consider Evelina as his beloved “sister” and acts accordingly with brotherly affection, the images of father, brother, and lover/husband eventually merges into his figure. Evelina herself often attempts to express her love for Orville in a sisterly manner, thus securing a means to avoid being seen as too forward and unladylike in their courtship, but it also puts Evelina’s relationship with her future husband precariously close to an incestuous relationship. The language of platonic sibling affection, while ensuring that the love of Evelina and Orville blooms in a successful and proper manner, introduces the disturbing allusion to sibling incest into their romantic intimacy and ultimately consummates the implicitly incestuous union by marriage. The subplot of Macartney, Evelina’s half-brother, emphasizes the incestuous undertones in Evelina’s romance by reenacting the relationship of Miss Belmont and her brother-like lover in a twisted manner and by allowing the two Miss Belmonts to marry their brother-lovers on the same day. The subversive presence of incest motive embedded in the romance plot questions and challenges the validity of the patriarchal power structure based on kinship and class system, accentuating Burney’s penchant for social satire.

*Key Words* Frances Burney, *Evelina*, class consciousness, class identity, kinship, romance, incest motif